

한국정치의 현실분석과 미래전망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망」 「서울올림픽 이후의 한반도와 강대국들」
「한국의 정치변동」 「격변하는 세계와 한국의 위상」

김학준

대통령 사회보좌역

김일평·길영환이 엮은 「한국의 정치변동」(영문판:美패라곤 하우스), 김홍락·민병천·임용순이 엮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망」(영문판: 한국학술원), 김홍락·임용순·이은호가 엮은 「서울올림픽 이후의 한반도와 강대국들」(영문판: 한국학술원), 이택휘가 엮은 「격변하는 세계와 한국의 위상」(한국정치외교사학회), 이 네권의 책은 각각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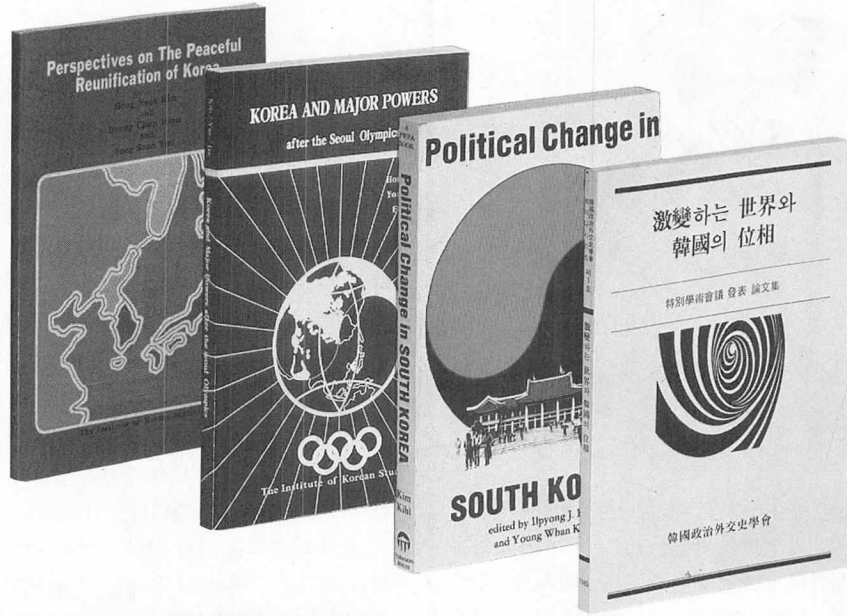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들이 상당히 많다. 1987년의 6·29민주화선언과 그것에 바탕을 둔 제6공화국의 출범 및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의 한반도 상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장래를 전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책들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책들을 종합서평하기에 앞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 책들에 기고한 학자들은 거의 전부가 그 방면에 권위있는 전문가들이며 그 분석은 객관적이며 학술적이라는 사실이다. 필자들의 상당수가 굳이 분류한다면 친북한적이라기보다는 친남한적이고 좌파적이라기보다는 우파적임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글들이 교조주의적이거나 편향적이지는 않다.

첫번째 책은 「Political Change in South Korea」(New York: Paragon House, 1988)이다. 3부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980년대 이후의 남한의 정치를 여러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잘 분석했으며,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의 정치를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필독서들 가운데 하나로 추천될 만하다. 10명의 필자들은 지도적인 在美 한국학 전문가들이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보아 남한이 6·29선언과 제6공화국의 출범 이후 대체로 민주화의 방향으로 전진해 가고 있다는 점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 점은 공편자인 길영환 교수와 김일평 교수가 함께 쓴 제1장 「제6공화국: 문제와 전망과 1988년의 올림픽」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들은 우선 제6공화국의 새로운 지도세력이 다원주의와 민주화의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고 관찰했다. 언론에 대한 통제가 해제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었으며, 교수협의회와 학생회의 자율권은 증대되었



이들 네권의 책은 제6공화국 출범을 전후한 시기의 한반도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장래를 전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필자들 대부분이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어서 그 분석과 전망은 객관적이며 학술적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친남한적 성향이 짙다고 하겠으나, 교조주의적이거나 편향적이지는 않다.

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늘어났으며, 노동조합의 힘이 커졌음을 그들은 정확히 지적했다.

그들은 이어 권위주의를 청산하려는 노태우 대통령의 능력을 인정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사람들의 대통령'으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으며 대화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굳히는 데 성공했다고 그들은 평가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남한의 민주화의 장래를 지나치게 낙관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뿌리가 워낙 강한 만큼 민주적·시민적 정치문화가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이 민주주의를 향해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번째 책은 「Perspectives on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Seoul: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1988)이다. 이 책은 3부 10장으로 구성됐으며, 10명의 재미 한국인 정치학자가 기고했다.

이 책 역시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의 남한의 정치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같은 시기에 있어서의 북한의 정치적 전개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 책의 초점은 남북한관계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서평의 초점 역시 그 주제에 맞추기로 한다.

이 책은 대체로 최근의 국제정치가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남북한이 그러한 국제조류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각각 상대방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군축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책은 이어 남북한이 자신의 종전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나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협상의 개최와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번째 책은 「Korea and Major Powers after the Seoul Olympics」(Seoul: The Ins-

titute of Korean Studies, 1989)이다. 이 책은 3부 12장으로 구성됐으며, 10명의 재미 한국인 학자와 2명의 국내 전문가가 기고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4장 「서울올림픽 이후 시대에 있어서의 소련과 남북한」에서 필자인 드릭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金應澤 박사가 노태우대통령의 개혁정치가 성공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는 점이다. 그는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와 노태우대통령이 각각 자신의 사회를 21세기 태평양시대의 과제에 부응하게끔 변혁시킬 수 있는 '길고 힘든 과업'을 개시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바로 앞의 책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국제환경과 남북한관계에 바쳐지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최근의 국제조류는 탈냉전·탈이데올로기의 바탕 위에서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조류는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 추세는 서울올림픽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한은 모두 종전의 냉전적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향한 하나의 큰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네번째 책은 7편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오늘날 세계적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사회가 민주주의의 이념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으며 1990년대에는 그 전진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파악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세계적 대전환의 조류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다행히 6·29선언 이후 남한사회는 민주화의 방향으로 전진해 왔으며, 그 추세를 누구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 이 책은 남한사회가 이제부터는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과제도 충실히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한 뜻에서 이택휘 교수는 「안정적·균형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제창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책은 이어 노태우대통령이 1989년 후반에 가졌던 두 차례의 정상외교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그것은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 모습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본 것이다.